

물고기 안전 지킴이

하천 물고기가 폐사하는 이유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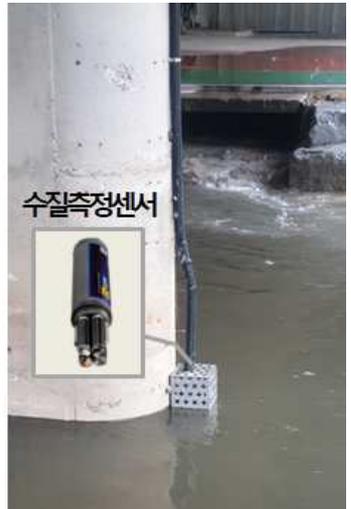
물고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폐사할 수 있습니다. 하천으로 공장폐수나 생활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거나 강우 시 도로변의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물속의 산소가 부족하여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. 그 외에도 수중의 조류 번식, 갑작스러운 수온의 변화 등으로 폐사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폐사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·분석해야 하며, 물고기 폐사 경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물고기 폐사 경보제란?

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하천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와 강우, 수위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한 시스템입니다.

경보제를 통해 온천천의 수질 악화 시 자동으로 시·구의 하천관리 담당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물고기 폐사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온천천 세병교의 수질자료로 경보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, 경보가 발령되면 하천 시료분석 및 원인 규명, 하천관리 강화, 유지용수 공급량 확대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



< 경보 발령 기준 >

구분	등급		
	주의보	경보	해제
경보지수(AI)	20초과 ~ 25이하	25초과	15미만

함께 알아보기	부산광역시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 (http://heis.busan.go.kr/environmental/water_01_007.aspx)
<p>1. 온천천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소(세병교) 전광판을 찾아봅시다. → 측정소 위치는 (http://heis.busan.go.kr/environmental/water_01_009.aspx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hr/> <p>2. 현재 측정소가 위치한 곳의 경보지수는 얼마일까요?</p> <hr/> <p>3. 물고기가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?</p> <hr/>	